

에서發願되어 全南靈岩道岬寺에 奉安되었던 韓國畫인이 判明되었다는 바 絹本 著色の 大幅縱一〇二·二cm 橫一五二·二cm)으로서 畫記는 다음과 같다.

(年代는 西紀一五五〇年 明宗 五年)

嘉靖二十九年庚戌四月既晦我

恭懿王大妃殿下伏爲

仁宗榮靖大王仙駕轉生淨域恭募良工綵畫

觀世音菩薩三十二應幀一面送安于月出山道岬寺之

金堂永奉香火禮尔 (右 위에 朱書楷字四行)

臣李自實沐手焚香敬畫 (左 아래 金泥楷書一行)

◎ 高麗紺紙金子寫經「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折帖 一册

同人 黃壽永氏에 依하여 調査 撮影된 바에 依하면 日本東京에서 民間所藏인 上記本에는 卷頭에 金畫變相圖가 있으며 卷末에 다음과 같은 跋記가 있다. 또 變相圖裏面에는 細字로서 「行願品變相 文卿畫」라고 있음이 注目되었다고 한다.

(各面 六行×十七字 縱二六·四cm×橫九·六cm)

至□(以下不明)

三重大匠寧仁君李也友不花

懇發丹心寫成行願品金剛經長壽經彌

陀經父母恩重經普門品各一部所集功德

皇福永固

□□□昌兼及□身無 病長生一門眷屬各消災殃

□□□……………旨及法……………同成佛道者

◎ 扶餘에서 細形銅劍 發見

金達洙氏 報告에 依하면 扶餘邑內 開城專賣支廳地工事中(一九五六年十一月二十日)寫眞과 같은 細形銅劍이 發見되었다 한다.



現長一三三·一cm로서 比較的小形이고 劍尖과 刃部의 大部分이 損落되었지만

元來는 精巧銳利한 銅劍이었다고 推測된다. 扶餘郡內에서의 銅劍發見例는 既往에도 二、三例 있었으나 邑內에서의 發見은 이번이 처음이다.

◎ 國寶圖錄 第四卷 出版

文教部에서 年次事業으로 刊行되는 國寶圖錄 第四卷 石造物篇은 一九六〇年十一月三十一日자로 發刊되었다.

內容은 石碑(四十三點), 石燈(十九點), 幢竿支柱(二十三點), 石水庫(四點), 石槽(六點), 其他(十點)의 六部門으로 區分되었고 解說은 金元龍, 尹武炳, 崔淳雨, 秦弘燮 諸氏가 執筆하였다.

◎ 觀龍寺 藥師殿 補修工事

慶尙南道 昌寧郡 昌寧面 所在인 同建物は 國寶 第二四四號로서 今般 國立博物館 學藝官 林泉氏의 監督下에 補修工事中에 있다. 屋蓋解體는 이번이 처음인만큼 새로운 事實의 發見이 期待된다.

慶州地方의 一石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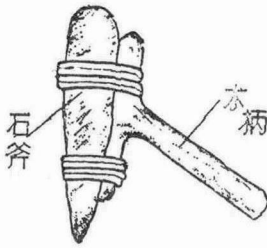
— 第二卷 第四號 通卷九號 —

金元龍

今年一月一九日 慶州를 지나가다가 溫古堂이라는 古物肆에서 寫眞과 같은 石斧를 購入하였다. 이 石斧는 灰白色 砂岩製이며 長一六·四cm, 鈎雙으로 된 刃部만을 磨研하여 外彎雙을 만들었고 其他部는 現代石工이 정으로 다듬은 것 같이 細密한 凹凸痕이 남아 있다. 石斧의 頭部는 概쳐 一部分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元來의 母石이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여 不明하지만 刃部에는 確實히 使用에 依한 欠落이 생기고 있다. 頭部 斷面 橢圓形의 圓筒形에 가까운 身部에 廣大한 下半 刃部가 달린 重打擊器며 文字 그대로 石斧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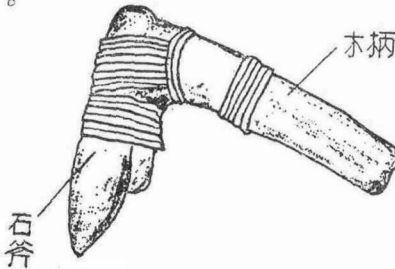
그런데 이 石斧가 特히 注目을 끄는 것은 圖에서 보듯이 圓筒形에 가까운 頭部가 下半 刃部에 連絡되는 部分에서 段을 짓고 있는 點이다.

a. 아라스카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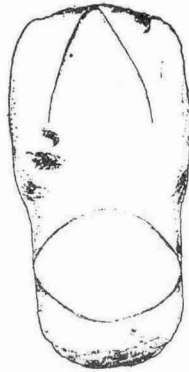


(據 Yale University Publications in Anthropology no. 16 p.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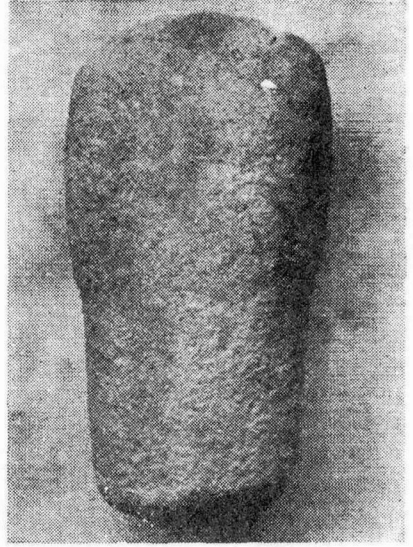
b. 台灣例



(據 考古學報 1958 3) P1. 3)



慶州出土石斧



石質、形態가 이 慶州石斧와 비슷한 것이 注目되는데 이 慶州石斧도 慶州附近에서 出土한 것은 틀림 없는데 正確

다시 말하면 石斧의 下半部가 上半部 보 다 段을 지어 넓어 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縮約된 上部와 넓어진 下部를 가진 石斧의 一例를 梨大博物館에서 본 일이 있었다. 梨大石斧는 그 出土地를 알 수 없으나

置하는 데는 大概 丁字形木柄에 끈(木皮 따위)으로 묶는 것이며 그런 例로서 現代 未開人들의 使用例는 포리네지아 諸島, 北美大陸, 또는 台灣等地에서 마أل든지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아라스카와 台灣의 例를 各各 들어 둔다.

圖示한 바와 같이 石斧를 끈으로 木柄에 묶을 때 身部에 끈이 걸리도록 段을 만드는 것은 實用에서 나온 發明이라 하겠다. 이렇게 段을 가진 所謂 有段石斧는 太平洋島嶼一帶로부터 中國東南部に 걸쳐 널리 分布되는데 한가지 注意할 것은 여기서는 段이 石斧의 一侧面에만 있고 他側은 平坦한 것인데 우리 慶州의 例는 段이 石斧 兩面 즉 넓은 面에는 없고 좁은 兩側에만 나타나 있어 서로 差異를 보이고 있는 點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發見되는 所謂 有溝石斧(挾入石斧)는 前記 中國地域의 有段石斧(鑿)와 關聯된 것이 거의 틀림 없는데 그와는 다르지만 一種의 有段石斧形式으로서 이 慶州發見石斧는 興味있는 一石器라고 할 수 있다. (一九六一年三月三十一日)

尹榕筆 採艾圖

全 鑿 弼

면산에 아지랑이 끼고 푸룽푸룽 새싹이 틀때가 되면 우선 생각나는 것은 古人들이 그려놓은 本草의 기분이 담백 실린 興趣있는 風俗畫들이다. 日前에 畫帖을 들여다보다가 그 中에 愜趣 넘쳐 흐르는 尹榕筆 採艾圖를 보고 하도 좋아서 이에 간단히 紹介하고자 한다.

이 그림은 豎二七·五cm 橫二一·二cm의 紙本水墨畫로서 파똥한 畵 村家の 한 아릿다운 女人이 틀에 나가 시원한 봄 大氣를 마음껏 呼吸하면서 나뭇잎을 깨다가 잠깐 쉬느라고 일어서 있는 듯한데 저편 밭고랑에서 들러오는 종달새 소리는 곳을 찾는지 面산에 아지랑이 낀 풍경을 바라보는 지 머리를 슬쩍 옆으로 돌리고 무심히 먼 곳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돌아서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워 보인다.

이것은 何如튼 이 石斧에 어떻게 段이 있는 것은 틀림없이 이 石斧를 자루에 裝置할 때 必要한 構造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石斧를 자루에 裝置